

# “책 한 권이 사람의 운명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전원일기의  
일용엄니책방



농촌드라마 <전원일기>의 '일용엄니'로 유명한 김수미 씨(52)가 자신만의 철학이 담긴 공간을 마련했다. '일용엄니'라는 익숙한 이름을 내건 '일용엄니책방'이 그곳이다. 강남고속버스터미널 경부선 지하에 있는 책방은 책과 꽃의 향기였다 인생 향기까지 버무려 이색적인 분위기를 연출한다. 고된 연예계 생활을 해왔고, 최근에는 병의(憑依· 죽은 사람의 영혼이 타인의 몸에 들어가는 현상)로 힘든 나날을 보낸 탓인지 그는 책을 통해 사람들에게 전할 말도 많다.

“주부들이 책을 안 읽는다는 갤럽 조사를 봤습니다. 내가 나서서 공간을 마련해야겠다고 생각했죠. 요즘 주부들은 커피잔에 금테 두르기를 좋아하는데 책 읽을 생각은 안하더군요.”

최근에 문을 연 서점은 교통의 요지로 번잡한 강남에 여유와 휴식을 선사한다. 10평 남짓한 서점 서가에서는 김수미 씨의 독서취향이 그대로 드러나는데 법정 스님, 박완서, 이해인 등 유명 작가들의 수필집이 많은 편. 김수미 씨는 '내가 읽고 감명받은 책'을 진열했다고 설명한다. 일종의 특화인 셈이다. 책방에는 아담한 담소의 공간도 있다. '북카페' 컨셉을 도입해 차를 마시는 공간까지 마련했는데 차값은 무료다. 책을 만나러 오는 사람 스스로 마시고 싶은 차를 탄 후 테이블에 앉으면 되는 자유로운 카페다. 이미 전국 각지에서 몰려온 팬들이 책방을 방문했고, 이곳에서 김수미 씨와 친구처럼 편안하게 대화를 나눴다. 바쁜 스케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일주일에 닷새 이상 이곳을 찾는 이유는 사람들의 책방 사랑 때문이라고 한다.

“제가 병의 때문에 고생했으니까 병의를 호소하며 찾아오는 분들을 상담해 주기도 하죠. 배우이기 이전에 한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싶거든요.”

그의 인생에서 책이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중학교 때 군산에서 상경한 후 외로운 마음에 늘상 끼고 다녔던 것이 책이었고 지금도 이동하는 차 안에서, 집에서 책을 읽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 이미 7권의 책을 내 베스트셀러 저자의 황홀경을 맛보기도 한 그는 최근 <그해 봄, 나는 종이 되고 싶었다>를 출간해 문장가로서의 면모를 다시 보여주고 독특한 인생경험을 털어놓기도 했다.

“한참 전성기 때 남편과 힘든 일들이 많았죠. 그때 명심보감에서 읽은 한 구절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네 두레박줄이 짧은 줄은 모르고 남의 집 우물 깊은 것만 탓하지 마라'는 말. 이 한 구절이 나를 지켜주었습니다.”

최근 일본에 다녀온 그는 “요즘은 건강도 좋아졌고, 마음도 편안하다”면서 서점운영과 방송활동 외에 백화점 문화센터에서 주부교양강의를 하고 있다며 바쁜 일과를 설명했다.

“일본 지하철을 타보니 시민들의 80퍼센트가 책을 읽고 있더군요. 우리나라에서는 백화점만 인산인해를 이루지 서점은 문 닫기 바쁘잖아요. 책을 펼치면 해답이 나온다고 충고하고 싶습니다.”

지난 3월 연예인으로선 처음으로 '이라크 파병 지지'를 적극 외쳐 눈길을 끌기도 한 그는 군인들을 위해 자신의 책을 기증하기도 했다.

“아이들은 책을 읽고, 엄마는 시집을 꺼내드는 모습이 이 공간을 통해 실현되었으면 좋겠네요.”

브라운관을 통해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했던 일용엄니. 그는 약방의 감초 이미지, 푼수대기 이미지를 걷어내고 '물질만능주의 시대에 책 한 권, 글 한 구절이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도 있다'며 설새없이 들어서는 서점 손님들을 반겼다. **☞**

취재 김청연 기자 · 사진 박신우 기자